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4년도 제49호

**행정소송 본안 계속.. '3번째 임기도전' 추진에 문체부제동**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주홍 연합뉴스 기자

**체육계의 시선**

**'계엄 덕에 무관심' 이기흥-정몽규, 이대로 연임 가능성 ↑ [초점]**

이재호 스포츠한국 기자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

**대한체육회장 후보 4명, 단일화 큰 틀 합의...23일까지 결론**

권종오 SBS 기자

**스포츠 조직 문제 해결 잊지 말아야**

**[수요광장] 사회 변화의 근간, 기억해 내는 힘**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허정무전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허정무 '정몽규 공정위 심사 평가표·위원명단 공개해야'**

안홍석 연합뉴스 기자

**김세훈의 스포츠N**

**시도민구단은 왜 존재해야 할까**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정권퇴진의 긴 겨울 앞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국정 운영의 끝을 보여주었다. 이어 무장계엄군 280여명의 국회 진입은 확고한 민주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무도한 정권의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상식에 기반 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은 붕괴되고 있다. 권력자의 비상식적인 권력욕 안에서만 존재하는 상식의 기준은 사회 곳곳을 한숨으로 채워나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인권은 끝을 모를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이를 타개할 정부의 인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이들로만 채워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체육계도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얼룩져 도대체 개혁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한 시절로 치달았다.

이에 체육시민연대는 바로 세워나가야 할 체육계의 비상식과 불공정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권퇴진의 큰 물결에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나서 정권퇴진의 긴 겨울을 맞이하고자 하며, 필요한 연대와 투쟁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체육시민연대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같은 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 ‘계엄 덕에 무관심’ 이기흥-정몽규, 이대로 연임 가능성 ↑ [초점]

시국이 계엄 정국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신경이 온통 정치와 여의도, 용산에 쏠려있다. 이런 상황에도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화력이 강한 정치권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됐다.

결국 이런 상황을 틈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내년 1월8일 축구협회장 선거를 치른다.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이미 3선을 한 정몽규 현 회장,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신문선 교수다.

대한체육회 역시 내년 1월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치러진다. 이기흥 현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고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등이 출사표를 밝혔다.

국민적으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연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 두 사람 모두 국정감사에서 큰 지적을 받아 중징계를 요구받은건 물론 이전 이후로도 온갖 논란을 만들어내며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그럼에도 스포츠공정위는 두 사람의 출마를 승인해줬고 두 회장은 모두 선거에 나오게 됐고 당선 유력 후보다. 정몽규 회장의 경우 3선이나 했고 재벌 회장, 축구에 많은 영향을 끼는 현대가라는 점에서 타 후보에 비해 앞선다. 대한체육회장은 너무 많은 타 후보군이 난립하면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오랜기간 지지기반을 갈고 닦은 이기흥 회장이 유력하다는게 체육계의 시선.

게다가 정몽규-이기흥 회장을 견제하는 가장 큰 세력이었던 정치권이 현재 계엄정국에 들어가며 체육계에 아예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체육계 목소리를 많이 내던 국회의원들의 소식이 뚝 끊긴 상황. 국정 혼란 상황이 정몽규-이기흥 회장들에게 기회로 된 셈이다.

선거까지 3주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계엄 정국으로 인해 외부 공격마저 느슨해졌다. 이대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이 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 대한체육회장 후보 4명, 단일화 큰 틀 합의...23일까지 결론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에 반대하는 체육회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일화'라는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제42대 체육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8명의 후보 중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과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 4명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오는 24, 25일 후보 등록을 마쳐야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단일화 공감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후보는 2시간여의 회의 끝에 가진 합동 인터뷰에서 2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국민과 체육인들이 원하는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다는 것과 후보 등록 하루 전인 23일까지 근소한 입장차를 해소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해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몇 번 더 만나기로 했고,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강태선(75) 서울시체육회장과 오주영(39)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등도 접촉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를 포함해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후보들은 1시간여 전체 회의에 이어 강신욱-유승민 후보와 박창범-안상수 후보가 각각 별도 회의를 가진 뒤 다시 모여 추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후보들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이기흥 3선 저지를 위한 단일화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4년 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는 강신욱 후보는 "(단일화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모였는데, 다른 (후보)분들도 모여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면서 "변화에 대한 체육계 열망이 큰 만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안상수 후보는 "이번처럼 체육회장 선거가 국민적인 관심이 있던 적이 없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후보가 되려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 단일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출신의 유승민 후보는 "체육계 열망이 큰 상황에서 훌륭한 분들과 자리를 함께해 가슴이 벅차다"면서 "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체육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기흥 현 회장은 후보 등록 하루 전인 23일을 전후해 출마 회견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수요광장] 사회 변화의 근간, 기억해 내는 힘



이현서  
아주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인간의 '기억'에 관한 상반된 주장이 있다. 스페인계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라고 하면서 기억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이와 반대로 폴란드계 미국 소설가 솔렘 애쉬는 "기억해 내는 힘이 아닌 잊는 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더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삶에서 이 두 가지 힘은 모두 필요하다. 과거에 행한 자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 실수를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실수를 자꾸 기억하다가 위축되어 버리는 뒷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개인의 삶은 기억과 망각의 두 힘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해 가는 사회적 삶은 '오직' 잊지 않고 기억해 내는 힘만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월3일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이번 사태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데에 책임 있는 모든 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 관심이 대부분 이 사건에 집중되면서 올해 계속 지적되었던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의 문제가 점차 흐지부지되고 비상 정국 속에서 이 회장의 3선 연임과 정 회장의 4선 연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가 생겼다.

지난 11월10일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을 수사 의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런데 문화부가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 하루 만에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3선 연임을 승인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지난 12월5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발표에 따라 이 회장은 연령 제한으로 IOC 위원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게 되어 3선 도전에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계엄령 사태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사퇴할 예정이고 정국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한체육회 문제가 유야무야 묻힐 수도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4~25일 후보 등록까지 이 회장이 3선 연임으로 출마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올해 2월부터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에 대하여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문화부는 지난 7월부터 축협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였고 11월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권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11월 29일에 4선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정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심사를 요청하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작금의 비상시국 속에서 스포츠조직의 문제 해결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이번에 대한체육회나 축협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지 못하여도, 올해 감사 결과에서 나온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을 것이다.

1989년에 영국에서 발생한 힐스버러 대참사가 보여준 기억의 힘을 믿는다. 영국 축구팀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 간의 경기장에서 철조망이 붕괴하여 관중 97명이 압사한 참사는 유가족과 축구팬의 노력으로 27년 만에 압사 사건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하였다.

처음에는 사건이 과열된 응원 열기 때문이라고 관중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결국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경찰과 구단 잘못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 경기 관중 관리 체계가 개선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문제를 잊지 않고자 기록하고 기억할 때, 바꿀 수 있다.

자료 출처: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2118>

# 허정무 "정몽규 공정위 심사 평가표·위원명단 공개해야"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직에 도전하는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정몽규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두고 "공정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허 전 감독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 회장이)각각 3선, 4선에 각각 도전해도 될 만큼 공정하고 바르게 협회를 이끌어왔느냐"면서 "이들의 무능과 도덕성은 더 이상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지만, 공정위만큼은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허 전 감독은 체육회 공정위가 심사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점과 김병철 공정위원장이 정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조속히 심사평가표와 위원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다시 공정위를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11일 열린 체육회 공정위 연임 심사에서 승인 통보를 받고 4선 도전에 나설 자격을 얻었다.

이로써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정 회장, 허 전 감독,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25~27일이고, 선거는 내년 1월 8일 치러진다.

# 시도민구단은 왜 존재해야 할까

원조 시도민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강등됐다. 2003년 창단된 뒤 21년 만이다. 창단 작업을 주도한 안종복 전 인천축구단 사장은 당시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해 돈을 버는 축구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자도 당시 현장에서 창단을 지켜봤고 적잖게 기대도 했다. 그렇게 한국프로축구판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며 품은 큰 꿈은 거품처럼 꺼졌다.

시도민구단은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 시도민구단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성적이 정말 전부일까. 좋을 수도 있는 게, 나쁠 수도 있는 게 성적인데 거기에 시도민구단이 매년 운명을 거는 게 맞을까. 성적을 잘 낸 구단이 무조건 잘한 것이라면 성적이 나쁜 구단은 사라져야 하나. 강등당하면, 승격에 실패하면, 구단의 가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가.

시도민 구단은 성적 못지않게, 어쩌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민이 축구단을 중심으로 화합할 수 있다. 축구단이 보여준 도전정신이 지역민에게 용기와 감동을 줄 수도 있다. 매 순간 뿜어내는 에너지에 지역민이 울고 웃을 수 있다. 지역에서 태어난 어린 선수들이 무럭무럭 자라 한국을 넘어 유럽에서 활약하는 재목들이 될 수도 있다. 축구 경기를 보러 지역으로 오는 외부인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축구단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도시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축구단이 지역의 상징, 시민 화합의 구심점, 지역의 심장, 지역민의 자랑거리와 프라이드가 될 수는 없을까. 인천 유나이티드 심찬구 임시 대표는 “시도민 구단은 축구 이외에 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면서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하고 지역민에게 자부심을 줘야 한다”며 “그게 시도민 구단이 기업구단과 차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국내 1·2부 프로축구단 중 절반 이상이 시도민구단이다. 1년 예산이 많은 곳은 200억원이 넘고 적은 곳도 50억원 이상이다. 예산 중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 즉 세금이다. 결국 시도민구단의 최대 스폰서는 지역민이다. 지역민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시도민구단의 임무다.

프로야구 한화는 올해 8위에 머물렀지만 팬들은 홈 71경기 중 47경기에서 만원관중을 기록했다. 수원 삼성은 1부리그 승격에 실패했지만 가는 곳마다 열혈팬 3000명 이상이 동행했다. 경기에서 패해도 그들의 외침과 존재감은 여전했다.

시도민 구단의 방향성은 기업구단과 달라야 한다. 운영비는 세금이고, 주주와 후원사는 시민이다. 고액 연봉을 주고 완성된 스타 선수를 영입해 우승을 노리는 기업 구단을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시도민 구단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도민 구단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를 변함없이 실천하면서 조금씩 전진해야 한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성적에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된다.

축구단 덕분에 지역민이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축구단 덕분에 자부심을 느낀 지역민이 한데 뭉쳐 다시 도전할 용기를 가진다면, 축구단 덕분에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유럽에서 뛰는 인재들이 많아진다면... 이런 모습들이 구현된다면 축구단에 들어가는 세금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

# 주간 스포츠 소식

진천군, 우석대·체육회 협약해 '스포츠 특화 도시' 조성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73529.html>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년 리그전 11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1275459&code=61161111&cp=nv>

구미시, '2024년 구미체육 유공자 시상식'성료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41217/130659111/1>

"스포츠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경북체육회·대경대 맞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7\\_0003000659](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7_0003000659)

대한체육회, 2028년 전국체전 개최지 유치 신청 공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7043200007?input=1195m>

이용기 대전시의원 "체육발전 위해 지도자 처우 개선돼야"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6035500063?input=1195m>

체육공단,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투표권 건전화 세미나 개최

<https://www.sportsworldi.com/newsView/20241217506269>

산청군체육회, 지역 학생들에게 체육 꿈 선물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339>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시행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1717092920187>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